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3 “우리도 함께 뛰다”

“빛어울수 홍보하고 건강도 다지고”

■ 상수도본부 ‘빛어울수 축구단’

‘맑고 깨끗한 빛어울수, 밝고 건강한 질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빛어울수 축구단’(단장 이호준 본부장)이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3·1절 마라톤대회를 통해 ‘빛어울수’의 우수성을 알리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올해로 창단 11년째를 맞고 있는 ‘빛어울수 축구단’은 매년 3·1절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직원들 간 화합을 도모해 왔다. 이들은 또 대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빛어울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었다.

평소 축구를 통해 체력을 다져왔던 참가자들은 근무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달려왔다.

러닝 훈련으로 3·1절 마라톤대회 민반의 준비를 끝낸 이들은 마라톤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있는 것은 물론 업무 추진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선·후배간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간의 의사소통도 활발해졌고 그만큼 업무 추진에 대한 효율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호준 본부장은 “건강한 동호회활동을 하면서 단련된 심신을 바탕으로 이번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광주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 ‘빛어울수’의 안정적 공급을 외치며 완주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이번 대회 선전을 위해 회원들 모두 열심히 준비를 했다. 참가하는 회원들이 경쟁보다는 배려를 이는, 참여의 미덕을 지닌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45만 광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이 행복해 하는 건강한 수돗물을 만들어 가겠다는 야무진 포부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겨우내 잠든 도전정신·열정 깨워라”

■ 특공무술 설악관 화순도장

“3·1절 마라톤을 통해서 겨우내 잠들었던 수련생들의 열정을 깨워 도전정신을 새롭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특공무술 설악관 화순도장 수련생들이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999년 7월 개관한 화순도장은 그동안 화순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체력단련장의 역할을 해왔다. 호신술, 낙법, 무기술, 기계체조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곳.

화순도장은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매년 3·1절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화순도장 수련생들은 대회시작에 앞서 특공무술 시범을 보이며 식전행사를 장식해왔다. 또 특공무술 도복을 입고 마라톤 코스를 달리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한눈에 받아왔다.

올해 5km 구간을 출사표를 던진 화순도장 수련생들은 지난해 대회에 이어 전원 완주가 목표다.
이들을 인솔하는 특공무술 5단을 비롯,



특공무술 설악관 화순도장 수련생들이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에서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박복성, 태권도, 공수도, 검도 등 화려한 무술경력을 갖고 있는 윤종진(40) 관장은 “해마다 3·1절을 맞아 수련생들에게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일깨워주면서 무술의 기본이 되는 지구력을 심어주기 위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는 숨이 차도록 뛰면서 나 자신의 열정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화순도장의 살림꾼 윤 관장의 아내 최수경(35)씨도 함께 참가한다.

최씨는 뒤에서 뛰면서 모든 수련생들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가장 마지막으로 결승선에 도착할 계획이다.

최씨는 “도장 수련생 모두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다가오는 봄을 느낄 수 있는 대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화순도장의 막내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김병용(7)군도 “형들의 손을 잡고 가장 앞에서 뛰겠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히트상품 생산도 마라톤도 일등농협”

■ 북광주농협

“직원들과 마라톤을 함께 뛰며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결의를 다지겠습니다”

북광주농협 구회회 조합장이 제46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을 통해 지역농협의 역할을 새로이 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직원들이 한데 뭉쳐 땀을 흘리며 조합 성장을 독려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

북구 본촌동에 위치한 북광주농협은 도시형 농협이지만 도시근교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형농협에 가깝다. 1900여명의 조합원들은 벼농사를 비롯, 딸기와 토마토, 고추, 화훼 등 시설원예로 주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농협의 자랑은 북구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은 ‘빛찬들 지산딸기’. 무등산 수박과 더불어 서울 도매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품목이다.

‘히트상품’을 내기 위한 북광주농협의 노력은 각별하다. 규산질 비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농약대 30%를 보조하는 등 매년 3억5000여만원을 지원, 일등 상품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북광주농협 임직원들이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결의를 다지며 3·1절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조합원과 고객을 위해 농협 건물에 건강·취미 교실을 열어 여가 생활을 돕는 한편, 매년 조합원자녀 장학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광주북구장학회에 매년 1000만원씩 5년 동안 5000만원을 기부할 계획도 세웠다.

“일등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런 노력에는 마라톤으로 다져진 직원들의 협력도 한 몫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나해 대회에 처음 참가했던 직원들은 “대부분이 마라톤을 처음 겪었지만, 직원 단합과 일체성을 기르는데 최고의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9개의 완주메달을 가진 최기호 경제팀장은 “지나해는 초보 마라토너가 많았지만, 올해는 개개인이 대회를 앞두고 많은 준비를 했다”며 “단합심도 기르고 건강도 챙기는 자리가 만들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새봄 새마음 장애를 넘어 힘찬 도전”

■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새봄 새마음으로 장애를 넘어선 힘찬 도전에 나선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과 소속 선수들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를 통해 새봄을 연다.

이번 3·1절 마라톤 대회는 이들에게 4번째 도전 무대다.

2007년 광주지역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와 종목별 단체 지원을 위해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정식출범한 이후, 2008년부터 매년 3·1절 마라톤 출발선에 서서 봄을 맞이해 왔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어 달리는 게 쉽지 않지만 이들은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하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3·1절 마라톤에 도전한다.

이들은 이번 대회 5km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풀코스인 42.195km에 비하면 짧은 거리지만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기나긴 길이다.

하지만 올 시즌 이들에게 새로운 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도전은 어느 때보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과 소속 선수들이 3·1절 마라톤 대회를 통해 아름다운 도전에 나서게 된다.

다 희망에 차 있다.
지나해 2010 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을 밑거름으로 해 장애인탁구팀이 창단하게 됐고, 얼마전 이하는 삼일 부회장이 새로 취임한 장애인체육회를 이끌고 있다.

이하는 삼일 부회장은 “장애인체육회 삼일 부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이제까지 못 다한 봉사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며 “행복을 이루는 가장

큰 기본은 건강으로 마라톤을 통해 건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회가 희망과 용기를 얻고 장애인들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장애와의 힘든 싸움을 이겨낸 이들의 당당한 도전이 3월1일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부동산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서구 마북동, 생산동, 3002㎡(908평), 매매가 15억원대.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8.725평), 토지 전체면적 15.818㎡(4,784평) 전용 되어있음. ▶광산구 우산동, 대지(321㎡(97평)) 건물 지하1층 지상6층 1326㎡(401평) 임대 내용: 보증금2억1천5백만원 월 7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아파트 2,300세대인근, 대출 3억원, 매매가12억원. ▶본 광고물건은 전속계약권 물건임. T. 06231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빌딩에서 50m지점 www.88858894.co.kr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목포 옥암동 사우나(2·3층) 4층 빌딩매매. ▶대지(중상상업): 210평. ▶건물(4층): 470평(2007년신). ▶매매가격: 23억(대출 14억 포함).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계화관리지역: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 지: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자연녹지: 700평. ▶일반공업지역: 800평.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토지매매. ▶대 지: 6500평 @1200평. ▶준주거지역(동림2구 건너편). ▶건 물: 6상가 30평, 창고80평. ▶상가 200평 공장200평.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광산구 월전동 토지매매. ▶대 지: 2000평(생산지지역). ▶6차선 도로변(공장, 물류창고, 차고지 등). ▶매매가격: 17억원(건물 600평 포함).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대 지: 4,000평. •건 물: 650평. •전: 9,500평. •합 계: 13,50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광주 ~ 무안 고속도로(나주 IC구). ▶광주에서 8분거리.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41-0163369호.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립 공원사거리)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권 및 시외소남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투과 영수분 손습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영빌딩, 대인동 소남사거리내편)